

한페루 FTA 가서명

11월15일 한국과 페루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하였다. 체결절차는 타결선언(10.8.30)과 가서명(10.11.15), 서명(내년초), 그리고 발효(내년중)이다.

페루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중남미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유망 신흥국가이며, 은(1위), 아연(2위), 주석(3위)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또한 광물, 수산물을 주로 수출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관계를 이룬다.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일 때 쌍방 모두에게 FTA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교역규모는 09년 기준 對페루 수출 6.4억불, 수입 9.2억불로 크지 않다.

이번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양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TV, 의약품에 그간 적용되어 온 9%대의 고율 관세가 경쟁국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철폐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품목	한-페루 FTA	한-미국 FTA
자동차	대형차 즉시철폐, 중형차 5년 철폐, 기타승용차 10년철폐	전품목 10년철폐
TV	전품목 즉시철폐	전품목 5년철폐

우리나라와 주력수출 품목군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일본보다 먼저 체결단계에 이르게 되어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페루시장에서 한국산과의 경쟁도는 일본산 42.1, 미국산 21.5, 중국산 19.6이다.

한편 건설인프라 수요 증가, 청정개발 메커니즘의 개발, 성형수술 시장확대 등에 따라 관련 투자와 서비스의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FTA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 최초로 에너지·자원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자원개발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페루는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남미에서 가장 활발하게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국가이다. 기업에서는 페루와의 교역품목이 한-페루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정부에서는 FTA마다 원산지·관세철폐 방식 등이 달라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내년 중 무역정보와 FTA 활용 정보를 연계한 통합 무역관리시스템 런칭할 예정이다.

한페루 교역현황 및 FTA 협상타결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경제 현황에서, 국토면적, 인구 등 물리적 규모 면에서 중남미 상위 그룹이나, 경제 규모는 중남미 국가 중 중하위권 수준이다.

전형적인 1차상품 의존형 경제구조로,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광물과 수산물이 대표적인 외화 획득원이다.

국토 규모는 남미대륙에서 네번째이며, 인구는 2006년말 2,840만명으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페루 GDP(09년) 1,290억

〈통합무역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예시〉

세 번	품 명	수출요령	관련법령	FTA 관련 정보 등
8512.20	조명용 기구	산업안전 및 환경 등 규제 내용	해당국 관련 법령	협정관세, 원산지 기준 등

달러, 수출 258억달러 (한국의 1/10 수준)이고, 총 수출 대비 비중은 광물 61.8%, 수산물 5.6%이다.

그러나, 페루 경제는 지난 5년간('02-'06년) 연평균 5.7%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중남미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 기간 중남미 경제 연평균 성장률은 3.6%이다.

교역 구조에서 한-페루간 교역은 '04년 이후 꾸준한 신장세이다. '08년 기준 對페루 수출은 7억2천만불(65위 수출국), 수입은 9억3백만불(41위 수입국), 총 교역액은 16억2천4백만불(對세계 교역 중 0.2% 상당)로서 현 교역규모는 크지 않다.

한국의 對페루 무역수지는 '94년~'01년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다가 '04년부터 적자 추세이다.

페루와의 교역은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산업간 무역형태이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윤활유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아연, 동, 납, 철광석 등의 광물과 오징어, 커피, 냉장 어류 등의 수산물이다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수출입 기대효과로서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관세율 9%)는 페루의 既체결 FTA 중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확보하여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 페루 자동차시장은 '05년 이후 매년 급격히 성장하여 '08년 최초로 10만대를 돌파(중고차→신차중심으로 구조적 변화)하였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중국·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9%의 관세 철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의 기체결 FTA 승용차 양허수준을 비교해보면, 한-페루의 경우 중형차 3개품목 5년, 대형차 3개 즉시, 나머지 10년이고, 페-미국의 경우, 대형차 3개 즉시, 나머지 10년 (페-중국) 모든 품목 10년이다.

전기전자의 경우, 현재 9%~1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칼라TV, 세탁기, VCR 등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단, 전세계 수출에서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고, 무관세 비중이 높아 FTA 체결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5년간 한·페루 교역 현황 〉

(단위: 백만불, %)

연도	총교역 (교역비중)	對페루 수출	對페루 수입	무역수지
2004	528 (0.1%)	245	283	-38
2005	532 (0.1%)	282	249	33
2006	1,035 (0.2%)	359	676	-317
2007	1,506 (0.2%)	466	1,040	-574
2008	1,624 (0.2%)	720	904	-184
2009	1,560 (0.2%)	641	919	-278

(출처 : 무역협회, 교역비중 : 對세계 교역 중 對페루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 對 페루 10대 수출입 품목 ('07년) 〉

순 위	수출 품목	수 출 개 수	수 출 액 (백만불)	수 입 품목명	수 입	
					금 액	증가율
1	자동차	114	24.5	아연광	498	47.9
2	무선통신기기	53	11.4	동광	315	30.3
3	합성수지	52	11.2	기타금속광물	101	9.7
4	형강	23	4.9	철광	32	3.1
5	기타석유화학제품	20	4.3	수산가공품	20	1.9
6	정밀화학원료	17	3.6	석유제품	16	1.5
7	자동차부품	15	3.2	기호식품	15	1.4
8	철강판	15	3.2	어육및어란	9	0.9
9	고무제품	15	3.2	연체동물	7	0.7
10	건설광산기계	13	2.8	천연섬유사	7	0.7

(자료출처 : KITA / 단위: 백만불, 전체교역액 대비 비중 %)

자원에너지 기대효과는 세계 7대 광물개발 잠재력 보유 7위의 국가로 다양한 종류의 주요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텔루리움과 셀레늄 등의 희유금속을 주로 생산하는 세계 주요 광업국가이다.

은(1위), 텔루리움(2위), 아연, 동, 주석, 비스무스(3위), 몰리브데늄(4위), 금(5위) 등이고, 아연광의 경우 전 세계 수입액중 31%(498백만불), 동광의 경우 9.4%(315백만불)를 페루에서 수입('07년 기준)했다.

수입 품목의 관세는 모두 0%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TA 체결로 아연 및 동 등 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특히,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 조항에 합의하여 광업분야의 對페루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것이다.

